



지금 그대로 내놓을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놓고 가는 것!

(지난 호에 이어서)

저도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한테 심부름을 올 바로 하는 건지, '대행'이라는 이 자체가 이름 이면서도 대행을 온전히, 올바르게 길을 인도하 고 지금 가고 있느냐는 것을 나는 항상 길을 걸 으면서도 생각하고 또 앉아 있으면서도 항상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대행이라는 이름을 가 지고 올바른 너는 대행을 하고 있느냐 하고, 어 떤 때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착 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너는 밝은 보 배와 같다고도 하고, 너는 벌레와 같다고도 하 고 뭐, 여러 가지죠. 저는 어떠한 나무의 뿌리에 매달려 있는 가지 이런 걸로 한번 돼 보기도 하 고, 여러 가지로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 을 해 보고, 어떤 때는 빗물이 옷으면서 가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르 흐 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지식이나 그런 분들이 풀썩 을 지날 때는 짚신에다가 방울을 달고서 뇌성 벽력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그냥 드문드문 팔 자걸음을 걸었습니다. 그건 왜?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죠. 걸음을 드문드문 걸었던 까닭 은 바로 이 마음을 항상 무겁게 생각을 할 수 있 는 그러한 마음, 항상 움켜쥐지 않는 마음을 무겁게 두고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내 보면 아시겠지만 풍청풍청 그저 아무 생각 없 이 뿔뿔뿔 뛰면은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일하면서도 깊 이 생각하면서 또는 길을 걸으면서도 깊이 생 각하고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깊이 생각하 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내가 자재하면 서, 질서를 지키면서 문란하게 하지 않으면서 2 세, 3세의 나의 길을 인도하는, 또 뿌리에 물을 주는 그러한 행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도 함이 없이 하셔야 하 고, 어떠한 데 무슨 고난이 있을 때도 한번 굴러 서 대답을 해 주고, 한번 굴러서 말을 하고 이러 면은 모든 불안이 없어지고 침착해지고 경솔하 지 않게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질 문을 하실 때 아무 빼놓을 게 없는 것입니다. 여 러분이 말을 꼭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하지 마

시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나처럼 있는 그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말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후회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걸 전 좋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서 서로가 공부 할 수 있도록, 이런 함이 없는 것이니까 거기도 끄달리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한 분 한 분 여 기 나오셔서 질문하신다면 아마 그것이 여러분 한테 양식이 되고 가는 길에 올바른 길잡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질문자(여) 사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절 에 다니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 는데 과연 제가 그렇게 행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지장보살만 찾으면 어떻게 그리 마음에서 아프고 눈물이 나오는 지, 스님께서는 다 몰락 뇌라 하시지만 지장보 살만 찾으면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지장보살이 될 수 없는가?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지장보살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크스님 예, 지금 보살님이 지장보살을 찾는

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장보살뿐만 아니라 어떠 한 이름이라도, 이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부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입니 다. 그건 모두가 불성이라는 것도 이름이요, 지 장보살도 이름이요, 주인공도 이름이요, 모든 게 이름입니다. 그러나 보살님이 지장보살이라 고 만약에 위대하게 생각해서 위아라 놓고 바깥 으로 찾았다면 그거는 망상입니다. 헛된 것입니 다. 만약의 경우에 머리가 잘못된다든지 크게 잘못되는 수도 있죠. 지장보살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의 무명에 묻혀 있는 보배를 말하는 것입 니다. 그 지장보살은 내 무명에 묻혀 있는 바로 그 보배의 불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이 불성은 지장보살 이라는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일체 부처님, 일 체의 모든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지장 보살이라고만 부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불성이 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이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이 결합 이 돼서 돌아가니까, 모든 게 종합해서 쉼 사이 없이 돌아가니까 이것을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

니다. '내면의 나의 주인공' 이렇게 한 것입니 다. 그러나 그 주인공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듯 이 풀포기 하나, 곤충 하나 버리지 않고 지수화 풍이라는 집 속에 그 주인들이 아주 한마음으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인해서, 그 보배로 인해서 의식 자체가 돌아가 고 악업 선업이 거기 한데 묻쳐서 회전을 하고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보살님은 그것을 지장보살이라고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의 주인 공 안에 같이 있는 지장보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곧 불성입니다. 그러니 바깥으로는 절대 끄달리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당 신을 발견할 수도 없거니와 당신도 언짢고 당신 가정도 못 지킵니다.

지난번에 뉴욕에 가서 질문을 받아 보니까 너 무도 신랄하게 잘들 하시더군요. 뭐 거침없이, 날더러 하는 소리가 "죽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 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니까?" 허 허,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 겁니다. 참, 옆에서는 질문도 질문 같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

래서 내 이 컵의 물을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이 목마를 때 탕다 하고선 들어가면 냉장고 문 열 고 찬물을 따라서 먼저 마시고 난 뒤에 '이거 먹 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이런 생각 은 이차적으로 하지, 목말라서 죽겠는데, 더워 서 죽겠는데 물부터 마시지 그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걸 목마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는 겁니다." 그랬 어요. 바로 이게 그거거든. 내가 목마라 그냥 먹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화날 때는 이러죠. "에이, 그냥 사는 거고, 살고 보는 거야, 그냥..." 이런 말을 하죠? 그렇듯이 그것이 아무 말이라도 질문을 했을 때 는 어떠한 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러니 여러분이 좀 더 의정 나는 게 있다면 질문 하시고 또 한번 질문해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 니까요. 그러나 아시면서 한번 질문해 보실 수 도 있고, 몰라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전력 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책을 읽어도 여러분 은 그 백지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줘요, 백지를, 그 종이는 생각 안 하고 글자만 들여다보고 따지죠. 허!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질문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2(남) 저는 불교에 입문한 지가 오래 됐는데 같이 열심히 다니던 한 도반이 선교 쪽으 로 갔습니다. 저하고 만나서 이따금 술을 한 잔 먹게 되면 다투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친구 가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리로 오게 되면 많은 중생 제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 사 람이니 자꾸 이리 가자고 해서 많이, 좋은 의미 에서 다투는 겁니다. 아침마다 혹은 저녁에 잘 때마다 사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대자대비하 시고 기록하신 부처님! 그리고 생불이신 우리 큰스님께 한마음으로 발원하여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도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 감사하는 마음, 보은 하는 마음,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함으로 써 참나, 큰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참주인공 을 내가 체득할 수 있도록, 자각할 수 있도록, 그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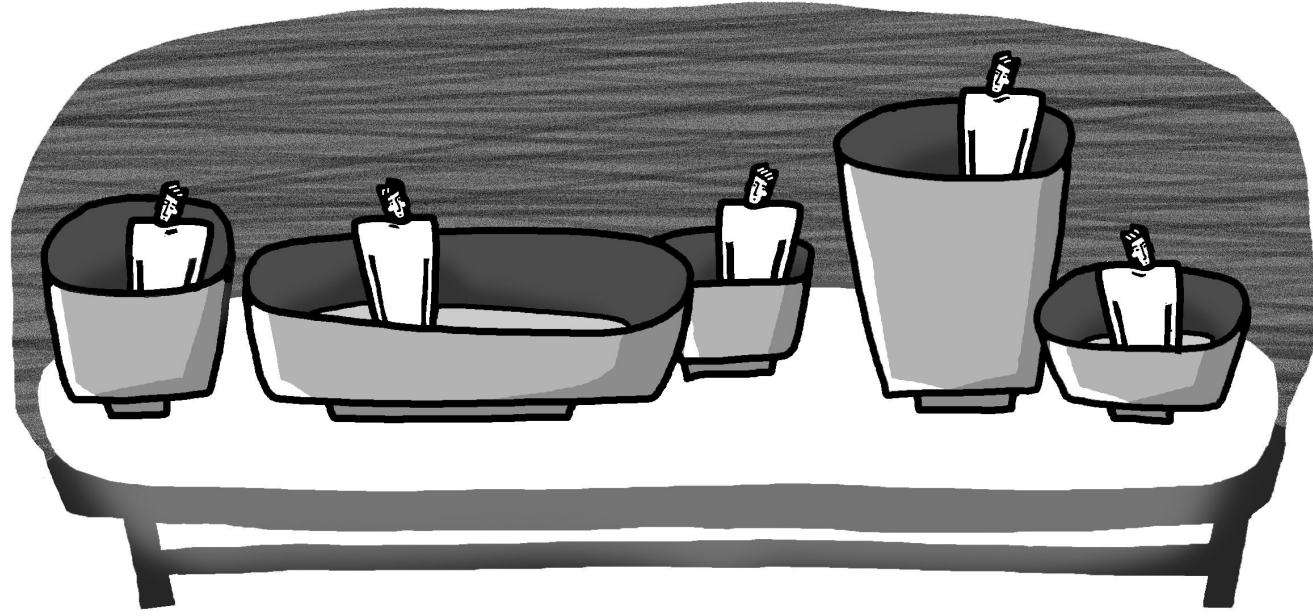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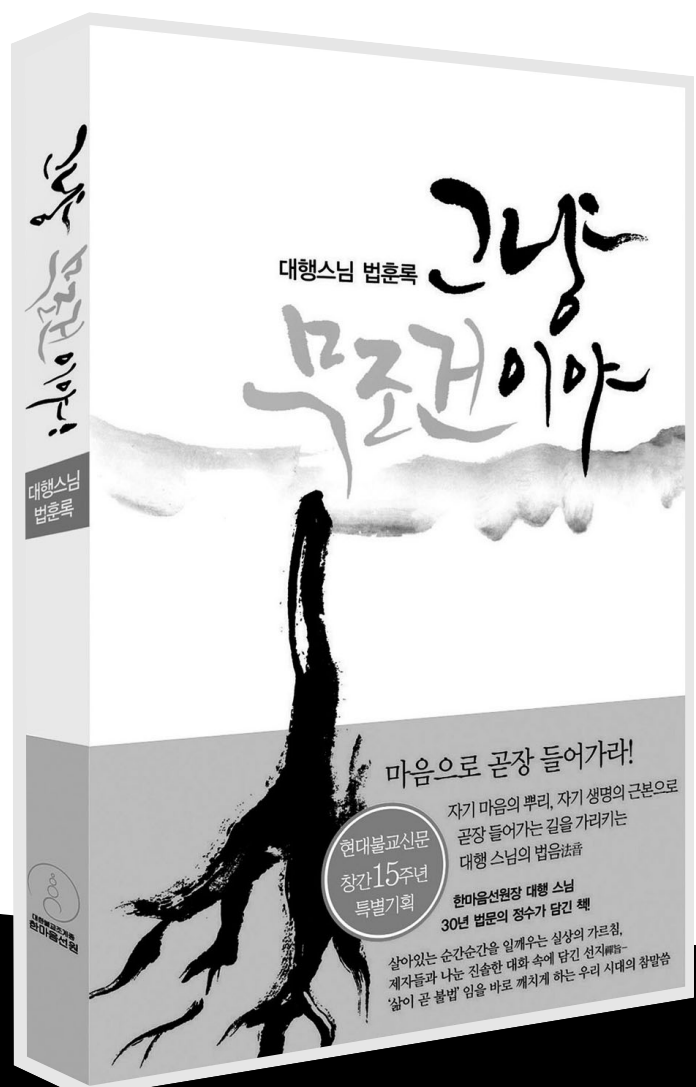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크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아이고! 아이고! 하는 놈은 누구냐? 요놈!

29면에서 계속

래서 저희 가정은 물론 저희가 접촉하는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해 주소서.' 하고서 기도를 하고 하루 생활도 하고 일일 삼송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제 한마음, 부처님이 늘 지적하여 주시는 참주인공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크스님 하하하.

질문자2(남)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마등처럼 어렸을 때 생각,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쁘게 한 생각 좋게 한 생각... 제 간에는 좋은 생각, 좋은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일일 삼송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된다. 이런 얘길 그 친구한테 했더니 그 자제를 꾸중을 해요. "너는 왜 크스님이나 부처님한테 대고 절을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나? 바로 그것이 우상 아니냐? 자네는 남 보고 그걸 우상이라더니..." 이 살아 있는, 대행 크스님은 살아 계신데 왜 우상이냐? 살아 계신 스님을 상대해서 절을 하는 건데, 물론 보이지는 않고 우리 집에서 하고 걸어 다니면서 하지마는, 그래도 산 부처님이시다. 우상이 아니다. 이라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게 잘못이야. 자네 그거 우상이니까, 한번 크스님을 만나 뵈거든 불문공작하고, 여태까지 불교에 입문해서 귀동냥 눈동냥 입동냥 많이 했다. 이는 건 알만큼 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요드려 절을 하고서 한번 여쭙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자가 며칠 안됐어요.

크스님 예, 예.

질문자2(남)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와서 이렇게 스님께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저는 가깝게 앉아서 크스님을 뵈고 법문을 듣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주문을 받고 와서 망설였습니다. 왜 절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에도 있듯이 물으면 괴리가 생긴단 말이예요. 오히려 안 묻는 게 낫지. 그러다가 '이것이 하나의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친구와 마침 또 그렇게 해서 싸웠고 "크스님한테 한번 불문공작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자네에게 진짜로다가 뭘 가르쳐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가, 아직도 모릅니까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크스님 예, 오늘 참이 질문을 하기로 한 것이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다음서부터는 문답으로 항상 이렇게 진행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친구 분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것에도 굴하지 말고, 맹신하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라고요. 나한테도 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절하는 게 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부처님한테 절하죠? (부처님을 가리키신 후)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절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저 형상이 내 형상이요, 저 마음이 내 마음이요, 저 생명이 내 생명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일배(一拜)를 올릴 때, 삼정례(三頂禮)가 일배로 될 때 그 일배는 반배도 되고 천배도 되고 또 일배도 될 수 있고 칠정례(七頂禮)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스럽다. 이게 각자 마음에 정해진 문제죠. 그러면은 나한테 기도를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면 벌써 둘이 되죠? 내 주인공을, 참나 주인공을 믿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오는 것도 거기 맡겨 놓고, 오든지 안 오든지 거기 맡겨 놓으세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좋은 것이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자기가 좋은 대로 지금 길을 걸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차원이, 이 지금 요그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을 아주 싹 놔 버리시면 서 자기와 자기를 둘로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써 거기 맡겨 놓는 그 행을 항상 하세요. 그러면 슬며시 그냥 돌아와요. "아무게, 자네 나하고 한번 안 가 보려나?" "나도 한번 가 보고 싶네." 아, 이렇게 스스로 되는 것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조식이 자유스러운 조식이 강제적인 조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거지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사람이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가 돈이 하는 소리가 "아, 내가 나를 좋아서 쫓아다녔지, 내가 너를 좋아서 쫓아다니던 게 아니니까 너를 쫓아갈 수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허허허. 그렇듯이 이전 강요해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자기 운전수를 믿고, 운전수가 바로 마음이라면 마음이 있기 이전 바로 그 기쁨, 누구나 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쳐 줄 수 있는 부처님의 기쁨을, 항상 서로 주면서 자기 속에서 내면의 자기 주인공만을 믿고 거기 놓으십시오. 편안하게 놓으세요. 그러면 아주

스님을 처음 보니까 뭔가 질문을 해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게 왜 안되는가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믿음이라든지 그걸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걸 강하게 하는 그런 길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스님 지금 선생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마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님! 다 놔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선생님은 "놓으면 놓을수록 쥐고 있게 된다." 이러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조금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그 말씀을 내놓으면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죠? 그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뭘 들고 있고 놓고 가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복하면 '그분이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안 그랬다면, 둘로 봤다면, 일곱 발자국을 떼지 않았다면 이런 풍파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을... 내가 있었더라면 죽어서 깨나 쥐 버렸을 것을...' 하는 그런

하는 소리가 먹살을 탁 잡고 "요놈아!" 그러면 서 주장자로 어떻게나 갈겨 댔는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나가 "요놈, 아이고! 아이고! 하는 놈은 누구냐? 요놈!" 아, 이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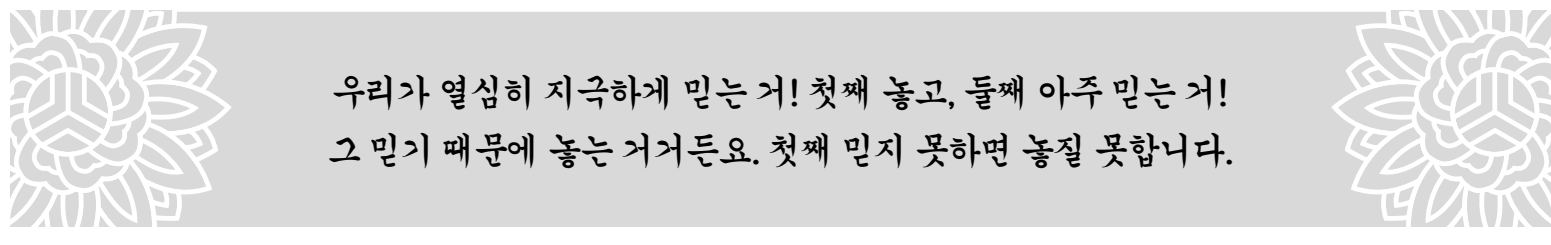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지극하게 믿는 거! 첫째 놓고, 둘째 아주 믿는 거! 그 믿기 때문에 놓는 거거든요. 첫째 믿지 못하면 놓질 못합니다. 왜 자기를 믿지 못해, 글썽! 아니, 남의 이름은 믿으려면 잘 믿으면서 왜 자기는 못 믿어?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더 있나? 누가 대신 죽어 주나, 대신 아파 주나, 응? 대신 누가 자 주나, 먹여 주나, 뽕 싸 주나? 아, 이거 큰일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믿어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건 없거든. 그러니 믿고 그저 놔요. 거기서부터 끝도 아닐 수 없다는 거.

생활 속에서 어떠한 괴로움 게 닥았죠. '아이, 이것도 거기서부터 해결 못하겠지.' 탁 놔! 그저 놓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일을 지켜봐라 이거야. 돌아오는 일을 지켜보면 거기서 체험도 얻을 수 있고,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물리가 터지고 지혜를 얻는 거지, 그 어렵습니까? 그저. 둘로 보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말은 '기도' 하면 벌써 상대를 두고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부처님' 하면 벌써 상대를 두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처님을 안 믿어서, 아주 나만 생각하고 부처님은 안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자서부터 그게 누적이 돼 내려왔고, 습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벌써 불렀다 하면, '지장보살!' 그러면 벌써 이렇게 울러놓고 부르고, '관세음보살!' 하면 이렇게 벌써 둘로 놓고 보고 아, 이러니 그놈의 걸 누가 그 노릇을 합니까? 그저 열린 길을 같이 가고 싶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아이고, 부처님!" 하면은 그냥 돌아 돼. 그러니까 "내 주인공을 믿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주인공 속에는 역대 일체의 부처님이 다 들어 계시고 중생들이 다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고 진짜 믿고 놓으십시오. 네. 그냥 놓고 가는 거니까요. 이왕지사. 하하하.

(법문을 마치시길 권하는 스님에게)
크스님 가만 있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뭘 그래. 뭘 세탈 같은 날에 뭐... (대중 웃음)

※ 위 법문은 89년 7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극하게 믿는 거! 첫째 놓고, 둘째 아주 믿는 거! 그 믿기 때문에 놓는 거거든요. 첫째 믿지 못하면 놓질 못합니다.

릇은 (법상 위의 물 겁을 들어 보아서) 요 겁의 물밖에는 못 담습니다. 큰 드럼통은 드럼통의 물밖에는 못 담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바다만큼의 물이 들어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니 어느 거 하나 버릴 것은 없으나 모두가 그릇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상점에 가니까 겁은 겁대로 놓여 있고, 사발은 사발대로 놓여 있고 접시는 접시대로 놓여 있던 걸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돼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면 아니 되고, 심국이 웃으면서 '야, 내 주인공, 내 주인공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겠지. 저 친구도 내 주인공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 내 주인공이 저 주인공이고, 저 주인공이 내 주인공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다 통하겠지.' 이렇게 그냥 놓으세요. 편안하게. 어디다가 대고 절을 하거나 이러지도 마시고, 집에 부처님을 모셔 놓고 또 하시지도 마시고, 물을 떠 놓고 빌지도 마시고, 향·초를 켜 놓고 빌지도 마시고, 그렇게 귀신 짓을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 그 귀신 짓 하는 습이 있으면 그 의식이 아다음에 죽어서도 귀신 짓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손해가 가게 하거든.

공부 같이 탁 트일 겁니다. 아아. 아, 이런 때가 얼마나 좋은 때인가?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만날 공공하게 사는데 오늘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렇게 참 토론을 하고 질문하면서, 좀 좋잖아요?

질문자3(남) 저는 스님이 쓰신 설법 책 『무(無)』라는 책과 『영원의 오늘』을 읽고, 스님을 직접 뵈는 것은 처음이지만 책을 통해서 스님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스님께서 그걸 전부 놓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순간부터 계속 놓아 갔습니다. 놓다 보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놔야 될 거는 어떤 개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나 자신을 놔야 된다는 걸 느꼈는데, 그걸 놓으려니까, 자꾸 놓는다는 걸 생각을 하니 까오하려고 더 들고 있는 이란...
크스님 하하하.

질문자3(남) 스님께서 쓰신 책을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게 오더군요.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읽으면은 스님께 일부러 여쭙지 않아도 내 스스로 주인공을 터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오늘

말도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찰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대로 내놓을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방 자식을 만나고 돌아섰어도 가 버린 겁니다. 놔 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 놔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지, 말이지, 이문입니다. 그냥 놓고 갔습니다. 그냥 그대로 스쳐 갔습니다. 그런데 또 만났습니다. 또 스쳐 갔습니다. 또 무슨 일을 했습니다. 또 스쳐 갔습니다. 그럼 그거 하신 거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붙들고 있을 것도 없고 안 붙들고 있을 것도 없고, 그대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파도 아니 되고, 아니 파도 아니 되느니라. 너는 인사를 해도 아니 되고, 아니 해도 아니 되느니라. 그러면 거기에 특정한 무엇인가 있을 터인데, 그 도리가 무엇인가?' 이랬을 때, 또 '들어가고 삼십 방방이 나가도 삼십 방방이, 거기에 들어와도 삼십 방방이 있을 때리고 나가도 삼십 방방이 있을 때리는 그 특정한 무엇인가 있을 텐데.'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했죠. "부처님이 어딴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 이리 오나라." 이렇게 불려서 책 내려가시더니



마이프렌드 정품 32,000원



무료배송, 정품확인 완료 73,000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종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며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격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문의전화 02)879-2007



강력한 터보팬동작, 무료배송 84,000원

선풍기 무료배송
 당일배송 및 안전배송
 마이프렌드 정품인증 완료

박스팬 선풍기 32,000원
 스탠드 선풍기(리모컨포함) 73,000원
 터보팬 선풍기 84,000원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www.hyunbulshop.com